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연기반 여행은 사람들의 여행행복을 증진시키는가?<sup>\*</sup>

- 위험지각, 주의회복이론 및 여행행복을 중심으로 -

Does Nature-based Travel Promote Traveler's Happiness in COVID-19?:  
 A focus on Risk Perception,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정 산 설\*\* · 김 경 배\*\*\* · 이 훈\*\*\*\*

Jung, San-Seol · Kim, Kyoung-Bae · Lee, Hoon

**요약**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이 생겨 관광객들의 부정적 심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여행객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국내 자연기반 여행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에 자연관광지를 여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대상 관광지가 관광객의 부정적 심리를 회복하고 행복을 지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코로나 거리두기 기간에 자연기반 관광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5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845부 중 74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기술 통계분석, 분산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위험지각은 회복환경지각에 영향력이 없는 반면 심리적 위험지각 및 사회·환경적 위험지각은 모두 회복환경지각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복환경지각은 주의회복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의회복은 여행행복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으로 부정적 상태에서 여행공간으로써 국내 자연기반 관광지의 중요성과 긍정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자연관광지 개발 및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인 사업체나 기관이 자연 관광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용어** : 자연환경 여행, 위험지각, 주의회복이론, 여행행복

Received April 23, 2021 Revised May 20, 2021 Accepted June 15, 2021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9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2082896)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수료, e-mail: jsan0114@naver.com

Ph.D. Candidate,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e-mail: kenneth7@dau.ac.k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Dong-A University.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e-mail: hoon2@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there have been constraints on tourism behavior, which are increasing the negative emotion of tourists. To recover from this negativity, tourists are pursuing domestic nature-based travel as much as possible in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confirm whether natural tourist destinations have the effect on helping tourist recover from COVID-inspired negativity and if perceived happiness is enhanced for those who traveled to natural tourists destin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zed model, data were collected from an online survey from September 5<sup>th</sup> to September 19<sup>th</sup>. A total of 742 of 845 respons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hysical risk perception did not affect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while psychological risk perception and socio-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had an impact on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had an impact on perceived attention restor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attention restoration had an impact on travel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heoretically verified the importance and positive role of domestic nature-based tourist destinations in a psychologically negative stat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natural tourism destination development directions were proposed for tourism business corporales and public institutions.*

**Key words :** Nature-based Travel, Risk Perception, Attention Restoration Theory(ART), Subjective Well-being

## I. 서론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의 관광객 수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UNWTO(2021)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증가로 여행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세계관광객 수는 2020년 약 74%가 감소하였으며,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2019년 대비 85.6%가 감소하였다.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 여행객들도 코로나의 전염성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여행일정을 변경 및 취소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다양한 구조적 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시선을 돌리고, 작은 변화에 따라 쉽게 여행을 변경하기 때문이다(이훈, 2001). 특히 관광지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해당 지역을 관광 불능상태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고

계성, 2010), 과거 2003년 SARS, 2009년 신종플루 등의 전염병 현상에서도 현재 코로나와 같이 관광객들이 여행일정을 취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여행을 통하여 일상의 피로를 회복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Nicolao, Irwin, & Goodman, 2009; Van Boven, 2005). 여행은 일상과 다른 다양한 경험들은 제공하여 개인의 긍정적 심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행객들은 관광 및 여가 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하지 못하여, 일상생활과 코로나의 스트레스로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삶의 만족도를 낮게 지각하고 부정적 심리를 느끼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sup>1)</sup>에서 2020년 8월 만 20~65세 일반인 중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로 인한 불안 및 우울감 경험자가 40.7%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외출 및 모임자체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 우울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다. 학술적 연구결과에서 역시 여행 활동의 제약적 상황에서 불안 및 우울증 등을 느끼는 경우 정신적·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최일선·이훈, 2016; Seligman, Rashid & Parks, 2006).

따라서 개인은 일상과 코로나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여행들을 추구하고 있다. 일상에서 부정적 정서를 느끼면 여가 및 여행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박주란·김병국, 2020; 정영린, 1997; Bernstein, 1975; Binstock, 1991; Caldwell & Baldwin, 2004). 실제 서울 관광재단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느끼는 사람들이 재충전과 일상으로의 탈피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관광의 중요성(77.3%)을 강조하였다.<sup>2)</sup> 이처럼 관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코로나 위협으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실시로 인해 국외 여행이 불가능하여, 여행이 가능한 국내 관광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 관광 시에도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도심지 여행을 기피하고 보다 안전한 여행을 찾아 추구하고 있다. 즉,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하며 대인

적 접촉이 적은 자연 속 여행 활동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 부킹닷컴의 작년 여름 국내 여행 예약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여름 국내여행이 11%를 차지한 수치와 대조적으로 2020년 국내여행이 약 89%에 달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국내 여행지 중에서도 전년 대비 숲이나 바다 등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다수 선택하였다.<sup>3)</sup> 개인들은 제약적 상황에서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된 자연환경을 방문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느끼고자 국내 자연 여행지를 택한 것이다.

학술적으로 Kaplan and Kaplan(1989)의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에 따르면 심리적·사회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 지각은 자연환경으로 떠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김영남·홍성화, 2020; Bratman, Daily, Levy & Gross, 2015). 또한 매혹적인 자연 환경을 접하면 개인은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에서 얻은 부정적 정서가 감소된다(Daniel, 2014). 구체적으로 자연 체험 활동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지루함 등의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atman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노출은 부정적 정서 감소와 함께 주관적 웰빙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동우, 2013; Bimonte & Faralla, 2014; Lin, Chang, Ko, Tsou & Chen, 2020; Windhorst & Williams, 2015).

이처럼 환경심리학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회복

- 1)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20),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public strengthens its response, Retrieved from <https://www.khealth.or.kr/board/view?pageNum=10&rowCnt=10&no1=513&linkId=1000436&menuId=ME NU00907&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contents1=>
- 2) \_\_\_\_ (2021.04.05) Peopler feel Corona Blue due to restrictions on leisure tourism activities due to COVID-19..Seoul tourism organization.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009/103319122/1>
- 3) \_\_\_\_ (2020.10.09) Summer domestic travel rate. Donga.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009/103319122/1>

심리에 대한 자연공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Southon, Jorgensen, Dunnett, Hoyle & Evans, 2017), 관광학 측면에서는 자연 여행을 통한 주의회복 및 행복지각을 연구한 것은 기초단계에 있다. 또한 기존 주의회복이론은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가 대부분 이어서(이승훈·현명호, 2004; Jiang, He, Chen Larsen & Wang, 2020; Moran, 2019; Stigsdotter & Grahn, 2004), 스트레스 외에 다양한 부정적 감정 측면에서 자연의 주의회복 효과를 연구한 것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분야에서도 자연여행지의 여행 기폭제 역할과 자연관광의 부정적 정서 완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와 회복환경지각, 주의회복, 행복 지각에 관련된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국내 관광객의 여행지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자연대상지를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 회복을 위한 적합한 여행 장소로써 자연관광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서 자연 기반 여행지를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이 자연 회복환경에서 여행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자연기반 여행 전 심리적 상태와 여행 중 회복환경 지각 상태, 그리고 여행 후에 여행행복 지각을 전·중·후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부정적 감정인 위험지각과 환경지각, 여행행복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연기반의 치유회복환경 여행활동이 궁극적으로 여행객의 심리적 불안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이론적 고찰

### 1. 부정적 정서 및 위험지각

#### 1) 부정적 정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상태의 하위 영역인 긴장, 권태,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가 감소할수록 행복의 상태가 유의하게 향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Nawijn, 2010; Seligman *et al.*, 2006). 일반적으로 부정적 감정 상태는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긍정심리학에서는 우울(depression) 및 불안감 등의 부정적 감정 상태를 flourish의 정반대 개념으로 제시하며 이를 제거하거나 걱정 상태로 조절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와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는 단순히 행복의 반대 개념인 흑백논리적 개념 외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오는 촉발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부정적인 심리 지각으로 개인은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상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여행을 떠나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행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심리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이윤정, 2015). Ehrenreich(2009)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는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Norem(2001)은 긍정적 사고 역시 효과가 있지만, 방어적 비관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일상에서 개인의 부정적 정서 측면은 우울, 불안, 신경증, 따분함 등을 의미한다(고동우, 2008).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에서 다수 다루어진 주제

는 스트레스이다.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연구주제로 하여 그것에 대한 원인과 기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으나, 그 외에 부정정서에 대한 논의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위협 지각으로 인한 불안감이라는 부정적 심리를 유발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위협지각 심리가 여행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자연기반 여행지에서 여행 경험이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회복하며 적정 행복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심리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위협지각

위험의 사전적 의미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불확실한 상황’ 또는 ‘부정적 가치의 사건에 놓일 가능성’ 등으로 정의된다. 학문적으로 위험 개념은 Knight(1920)에 의해 경제학에서 처음 논의되고 이후 행동과학, 재무학, 심리학 분야에서 의사결정 관련 연구로 확대되었다. Bauer(1960)는 마케팅 분야에 처음 위협 지각을 도입하였는데, 위협지각은 객관적인 위험과는 구별되며 ‘소비자가 선택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였다. 관광객들은 특정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면(Kim, Qu & Kim, 2009), 의사결정 시에 다양한 방향의 지각된 위험을 느끼게 된다(Fuchs & Reichel, 2011; LePera, 2011).

위험지각(Risk Perception)은 2000년 이전에는 오일 쇼크, 경제위기, 전쟁 등의 특정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활동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증가하여 보다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오미영·오미숙, 2013), 최근 들어 자연재해, 질병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장병권·강문호, 2009). 또한 국가 간에 의존과 교류가 강화되며 과거의 국지적 차원

위험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역시 이와 같은 전파 작용이다. 코로나19 전파로 전 세계적인 관광 수요가 급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행상품은 고관여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지각 정도가 높기 때문에 여행객이 지각하는 위험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으면, 여행상품의 구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Assael, 1997). 따라서 위험지각은 여행 활동 유형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Kim, 2005), 여행지의 이미지 형성 및 방문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조성찬, 2011). 즉, 여행객이 위험지각을 하는 정도에 따라 선택하는 여행 유형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대상지 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특정 대상지 방문을 포기하거나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위험지각은 재무, 사회적, 시간적, 신체적, 심리적 등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Reisinger & Mavondo, 2005). Jacoby and Kaplan(1972)은 위험 지각을 제품 물리적 위험, 신체적 위험, 경제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Kim *et al.*(2009)은 온라인 항공 티켓 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을 성과위험, 재정위험, 사회위험, 신체위험, 심리위험 등 7가지 요소로 도출하여 활용했다. 위험지각의 대상에 따라 다른 위험적 요소가 나타남으로 연구마다 상이한 분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행경험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와 긴장감 및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는데(박유진·김재휘, 2002), 코로나19와 같은 구조적 상황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 심리를 해소하는데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에서 행복감을 저해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 연구 시 스트레

스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개념의 부정적 정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험지각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면적 불안 지각 상태로 (윤설민·이충기·강현, 2014), 특정 위험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적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주의회복과 관련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던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관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요인을 제외하고, 다차원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Peter and Ryan(1976), Roehl and Fesenmaier(1992) 및 조성찬(2011)의 위험지각 연구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전염병 위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환경적 위험이라는 3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여행객의 지각된 위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 2. 주의회복이론(ART :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자연은 인간의 정신건강향상과 주의력회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주의회복이론은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회복 효과에 대한 개념이다(Kaplan *et al.*, 1989). 일상생활은 특정한 일이나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는 지향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 활동에 집중하기 위하여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지향적 주의'라고 한다. 지향적 주의가 반복되면 인간은 심리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불안감 등 부정적 감정을 지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정신적 피로를 회복력을 가진 환경을 통하여 회복작용 하는 것을 주의회복이론이라고 한다(Hartig & Staats, 2006).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환경인 '회복환경(restorative

environment)'은 여행객이 노력 없이 일상에서 소모된 지향적 주의를 회복시키며,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자연환경을 지각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통해 회복하는 환경구성요소는 '해방감(being away)', '매혹감(fascination)', '규모성(extent)'이나 '조화로움(coherence)', '일치성(compatibility)'이다. '규모성'은 경관의 공간적 여유로움 정도 및 경관 내적·외적인 요소와 조화성에 대한 것이다. 해방감은 일상과 다른 일탈적인 상태로 이동을 의미한다면, 규모성은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이다(Hartig, Kaiser & Bowler, 2001). 조화로움은 회복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하나의 완성된 전체를 이루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이승훈·현명호, 2003). 매혹감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히 시선이 갈 정도로 매혹적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 정서를 회복시키는 회복환경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높게 지각되었을 때 보다 크게 지각된다(오경희·김동준·연평식, 2016).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우울증, 불안감 등)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를 회복할만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환경을 극대화하여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에서 치유회복환경을 지각한 관광객은 스스로 스트레스 완화, 권태감 극복, 주의력 회복, 정서적 웰빙, 정서적 개선, 주관적 안녕감 지각 등의 주의회복을 보다 높게 경험하게 된다(박주란·김병국, 2018; 이승훈, 2007; 최영준·이효성·문상정, 2016; 이승훈, 2007). 다수 연구에서 환경심리 분야를 토대로 자연이 인간의 정서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학에 관련한 심리적 지각 상태가 회복경험 및 여행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다소 최근 들어 관광분야에서도 치유 및 행복 향상 관점에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관광객 개인에게 웰빙을 지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영린(1997)은 일상에서 부담 지각은 정신적 및 신체적 휴식을 필요로 하는데, 여행은 웰빙 및 휴식을 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니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상봉·류시영·송운강(2013)은 여행에서 심리적 측면인 일상 탈출은 긴장감을 해소시켜 정신적 상태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기존의 부(-)적 심리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연경험을 토대로 여행을 할 시에는 보다 큰 긍정심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연여행지 경험의 주의회복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Berto(2005)가 개발한 회복환경지각 척도 중 '벗어남(being away), 짜임새(coherence), 매혹성·일치성(fascination-compatibility)' 요인을 중심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활용되는 변수인 위험지각과 회복환경 지각은 둘 다 지각 상태로 동시에 측정하지 않고 여행의 전과 후로 구분하여 지각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단계적 심리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 3. 여행행복(Travel Happiness)

여행행복은 삶의 만족과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행경험 결과의 만족과 함께 삶의 총체적인 긍정적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Diener, Suh & Oishi, 1997). 이와 같은 여행행복은 여행만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행만족은 여행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이 심미적,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긴장이완 등의 영역에서 얻는 만족감 정도이다(이정순·전원배, 2005; 정산설·이훈, 2019). 여행참여에 따른 다양한 이득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적

절한 척도로 여행에 대한 여행자 지각의 결과이며 삶의 총체적인 긍정적 상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행복 인식은 여행만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큰 개념으로 긍정적 정서의 충만함을 인식한 상태인 것이다.

Seligman(2012)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일반적으로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으며, 행복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우울감, 권태감, 스트레스, 불안감 등 부정적 감정 상태의 상반된 개념을 행복으로 본다. 셀리그만이 언급하는 행복은 행복이 만개된 플로리시(Flourish)의 상태로 좋은 감정 외에 의미 있고 건강한 생활, 성취감 등이 포함된 결과이다. 긍정심리학자 및 플로리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우울, 권태, 불안감 등 부정적 감정 상태를 플로리시의 정반대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함으로써 만개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경험을 통해 부정적 감정이 해소된 것을 행복을 지각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여행을 통한 행복 지각은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와 헤도니아(hedonia)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광학, 심리학 등의 다학제적 학문에서 다루고 있어 행복 개념을 정의하는 것과 이를 측정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권장욱·이훈, 2016; Dodge, Daly, Huyton, & Sanders, 2012; Smith & Diekmann, 2017). 행복은 경험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과 객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과 같은 인지적인 평가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Bimonte, & Faralla, 2012; Huta & Ryan, 2010; Knobloch, Robertson, & Aitken, 2017). 즉, 행복의 개념은 양적인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며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Cho, 2017).



다. 즉, 자연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기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며, 자연의 회복환경이 기존에 지닌 불안감, 지루함,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심리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Hartig, Mang and Evans(1991)는 야생 관광을 하는 관광객 및 야생관광을 하지 않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유사실험설계를 실시한 결과, 자연환경경험을 한 관광객에게 주의회복 효과가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야생 관광 경험자는 회복환경을 가지는 자연환경을 떠나 일상을 돌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더 긴 기간 동안 긍정적인 감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야생적인 관광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복환경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제시된 것이다. 최영준·이효성·문상정(2016)은 TV화면의 구성에 따른 심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경관 시청 집단과 도시경관 시청 집단으로 구분하고 실험연구한 결과 자연환경 시청 집단이 불안, 우울, 부정적 정서가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회복환경지각 요소인 매혹감, 해방감, 혼잡감, 조화감에 있어서 자연환경에 노출이 더 많이 되었을 때 매혹감과 조화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존의 부정적 정서를 지닌 개인이 회복환경에 노출 후 주의회복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여행 전 위험지각은 회복환경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여행 전 심리적 위험지각은 회복환경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여행 전 신체적 위험지각은 회복환경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여행 전 사회·환경적 위험지각은 회복환경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자연여행에서 회복환경지각은 주의회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주의회복 및 여행행복의 관계

박주란·김병국(2020)은 관광지 유형에 따른 회복경험의 차이와 회복경험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연기반 환경을 경험한 관광객이 회복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동시에 이와 같은 회복환경지각은 긍정적인 심리 자원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안형 관광지 보다 산악형 관광지의 회복경험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형·최석환(2018)은 자연 환경에서 골프를 체험한 참여자들은 주의회복을 지각하고 나아가 심리적 행복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골프장의 자연환경 경험이 심리적 피로를 풀어주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H3 : 주의회복은 여행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측정항목 구성

이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위험지각은 Peter *et al.*(1976), Roehl *et al.*(1992), 조성찬(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12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위험지각'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람들의 분야별 심리적 위험지각 상태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심리적 위험, 신체적 위험, 사회·환경적 위험'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회복환경 지각은 여행 대상지에 대한 지각상태를 확인하는 총 11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11개 항목은 선행연구에 따라 '벗어남(being away), 매혹감·일치성(fascination·

〈Table 1〉 Status of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in Korea

Date	Mean(N)	Cumulative(N)	Date	Mean(N)	Cumulative(N)
2020.02	104.6	3,139	2020.07	50.2	1,506
2020.03	221.2	6,636	2020.08	188.1	5,642
2020.04	32.6	979	<b>2020.09</b>	<b>128.8</b>	<b>3,865</b>
2020.05	23.4	703	2020.10	90	2,699
2020.06	44.4	1,331	2020.11	256.3	7,689

\* Corona-live statistics

compatibility), 짜임새(coherence)' 3가지 요인으로 묶어 하나의 회복환경지각으로 구성하였다. 주의회복지각은 Berto(2005)의 척도를 활용하여 5개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자연기반 여행에서 느끼는 회복 지각경험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여행행복은 Campbell(1981), Diener *et al.*(1984), 서은국·구재선(2011)에 의하여 개발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보완된 항목의 타당성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수치가 나와 이를 활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래의 여행 행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향후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 중 국내 자연여행 진행 의지정도'를 5점 척도 단일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에 자연기반 관광지를 여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중·후의 지각 상태를 구분하여 2020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전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 설계시기를 고려하여 확진자 수가 줄어 안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높은 시기에 설문을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소 위험지각 코로나 확진이 높았던 2020년 9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자연기반 관광지 여행에 참여한 여행자를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Table 1〉 참고).

여행참여 전 심리적 상태와 여행 참여 중과 후의 지각 상태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경험에 대한 지각 시기를 구분하여 설문하도록 하였다. 학술적으로 자연기반 관광지 경험은 거주지(자치구)를 벗어나, 타 자치구 또는 타 지역의 자연이 있는 여행지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근거로 조사기준을 세웠다. 이는 문화예술형(자연 속 식물원 등), 스포츠형(자연 중심 운동), 관광활동(캠핑, 차박 등), 취미 오락활동, 휴식 활동(수목원, 산책 등)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회수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 총 845부 중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 103부를 제거한 후 74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PSS는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AMOS는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하였고, 추가적으로 가설검증을 위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우종필, 2012).

## IV. 분석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집단 간 차이 검증

〈Table 2〉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표이다. 성별은 여성(51.6%)이

<Table 2>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respondents (N=742)

Demographics		N	%	Demographics		N	%
Gender	Male	359	48.4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diploma	118	15.9
	Female	383	51.6		Bachelor's degree	494	66.6
Age	20-29	114	15.4		Masters degree	96	12.9
	30-39	137	18.5		Doctoral degree	34	4.6
	40-49	157	21.2	Marital status	Non-married	201	27.1
	50-59	166	22.4		Married	532	71.7
60≥	168	22.6	Etc.		9	1.2	
Income (₩)	≤1million	55	7.4	Occupation	Professional	130	17.5
	1million~2million	83	11.2		Entrepreneur	74	10
	2million~3million	170	22.9		Service	34	4.6
	3million~4million	152	20.5		Office worker	261	35.2
	4million~5million	99	13.3		Official	29	3.9
	5million~6million	67	9		Housewife	116	15.6
	6million~7million	37	5		Student	32	4.3
	7million~8million	37	5		Retirement/Unemployment	43	5.8
≥8million	42	5.7	Leave of absence		8	1.1	
Travel area	Capital area	386	52		Other	15	2
	Suburb	356	48	Children (married N=532)	Yes	488	91.7
					No	44	8.3

남성(48.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15.4%), 30대(18.5%), 40대(21.2%), 50대(22.4%), 60대(22.6%)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는 미혼 27.1%, 기혼 71.7% 기타 1.2%로 나타나 기혼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532명 중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91.7%를 차지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거리두기 기간에 방문한 동반자의 유형을 중복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이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연기반 관광지를 방문한 여행의 형태가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중심으로 보다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컨슈머인사이트가 주도한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 결과, 여행 수는 감소하였으나(10%이상 감소) 2019년 대비 코로나 이후(2020년)의 숙박여행 경험

비율의 등락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위험성은 초기보다 높아졌지만 영유아 초등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당일여행과 숙박여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는 코로나19가 극심한 기간에 여행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로써, 연령별로 코로나에 대한 위험지각 정도에 따라 여행의지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연령별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 중 국내 여행 진행 의지정도'를 질문한 결과, 20대-60대는 연령대별로 분산의 동질성 검정 유의확률이 .517로 나타나 집단 간 동질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Table 3> 참고). 또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집단 간 응답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able 3〉 Result of homogeneity test of variance

Levene's test	df1	df2	Sig.
.812	4	737	.517

〈Table 4〉 Result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ource	Sum of square	df	MS	F	Sig.
Between	48.259	4	12.065	9.033	.000
Within	984.406	737	1.336		
SUM	1032.664	741			

〈Table 5〉 Result of Scheffe's post test multiple comparison

(I) Group(age)	(J) Group(age)	Mean difference (I-J)	Sdt. error	Sig.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bound	Upper bound
60≥	20-29	-.529*	.140	.007	-.96	-.10
	30-39	-.604*	.133	.000	-1.01	-.19
	40-49	-.328	.128	.163	-.72	.07
	50-59	.006	.126	1.000	-.38	.40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각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행의 지가 60대에 비하여 20대 및 30대가 여행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0대 고령자에 비하여 20-30대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행하고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고령자가 코로나 감염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어 상대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외부 활동을 꺼리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혜리·윤태영·김수경

·김영선, 2020).

## 2.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이 연구의 각 잠재변인을 구성한 관측변인의 구성이 타당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모형적합도 지수는 GFI=.888 TLI=.900, CFI=.911, RMSEA=.054로 나타나 기준치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FI는 0.9

〈Table 6〉 Indices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x2	df	p	GFI	TLI	CFI	RMSEA		
						Value	Lower	Upper
1382.741	440	.000	.888	0.900	0.911	0.054	0.051	0.057

이상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인 0.8 이상이 나타났다(Liang, Chang & Wang, 2011). 모든 측정항목은 표준화 계수는 기준값인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 값이 나타났다(〈Table 7〉 참고).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지수를 확인한 결과 기준값인 .7 이상이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념신뢰도(CR)가 0.7, 평균분산추출값(AVE)이 0.5를 상회하고 있어 집중타당성을 나타내고 있다(Hair, Black,

〈Table 7〉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s & Indicators		B	S.E.	$\beta$	C.R.	P	AVE	CR	Cronbach's $\alpha$
P S R	Feeling anxious from COVID-19	1	-	0.664	-	-	.531	.771	.816
	Feeling stress from COVID-19	0.763	0.049	0.775	15.658	***			
	Feeling anxiety from COVID-19	0.972	0.056	0.741	17.305	***			
R P	Concerned about being harmful to health	1	-	0.700	-	-	.574	.743	.836
	Concerned about respiratory disease	1.309	0.065	0.735	20.131	***			
	Concerned about physical sequela	1.338	0.070	0.778	19.033	***			
	Anxiety about spreading to others	1.100	0.063	0.710	17.519	***			
S E R P	Anxiety about socio-environmental influences	1	-	0.709	-	-	.551	.860	.857
	Anxiety about affecting the next generation	1.011	0.061	0.656	16.538	***			
	Recognized as an important issue for resolution	0.995	0.055	0.721	18.118	***			
	Concerned about causing various damages	1.131	0.056	0.813	20.216	***			
	Feeling the danger to society	1.068	0.053	0.801	19.958	***			
PRE	Restoration1: being away	1	-	0.602	-	-	.590	.786	.884
	Restoration2: fascination·compatibility	2.056	0.217	0.884	9.461	***			
	Restoration3: coherence	1.494	0.172	0.639	8.681	***			
PAR	Forgetting all worries	1	-	0.791	-	-	.528	.847	.826
	Restoration of concentration	0.808	0.043	0.798	18.743	***			
	Arranging one's ideas	0.677	0.044	0.666	15.267	***			
	Relieve stress	0.724	0.044	0.709	16.542	***			
	Undergo relaxation	0.745	0.049	0.652	15.328	***			
SW	Feeling happy with the trip	1	-	0.768	-	-	.570	.840	.834
	Feeling rewarded in many ways	0.939	0.050	0.710	18.665	***			
	Time passes quickly in the trip	1.008	0.051	0.755	19.869	***			
	feeling like a happy person after traveling	1.001	0.050	0.755	19.862	***			

\*\*\*p<.001

\*RP: Risk perception, PSRP: Psychological risk perception, PHRP: Physical Risk perception, SERP: socio-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PRE: Perceived restorative, PAR: Perceived attention restoration, SW: Subjective Well-being

〈Table 8〉 Correlation matrix and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s	PSRP	PHRP	SERP	PRE	PAR	SW
PSRP	1					
PHRP	.661 (.436)	1				
SERP	.551 (.303)	.742 (.550)	1			
PRE	.329 (.108)	.367 (.134)	.361 (.130)	1		
PAR	.233 (.054)	.141 (.019)	.133 (.017)	.726 (.527)	1	
SW	.279 (.077)	.345 (.119)	.384 (.147)	.754 (.568)	.593 (.352)	1
AVE	0.531	0.574	0.551	0.590	0.528	0.570
CR	0.771	0.843	0.860	0.786	0.847	0.840

\* The number in parentheses means the squared valu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 RP: Risk perception, PSRP: Psychological risk perception, PHRP: Physical Risk perception, SERP: socio-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PRE: Perceived restorative, PAR: Perceived attention restoration, SW: Subjective Well-being

Babin & Anderson, 2009).

판별타당성 검증은 개념적이 유사한 요인 간 상관 정도가 가장 높은 쌍을 대표적으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변수 간 상관을 선택한 이유는 상관이 높을수록 판별타당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우종필, 2012). 〈Table 8〉에 따르면 ‘회복환경지각과 여행행복’ 간 상관계수의 제곱이 .568로, 회복환경지각의 AVE는 .590, 여행행복의 AVE는 .570으로,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각 변수의 AVE 값이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을 충족하고 있다(우종필, 2012).

### 3. 구조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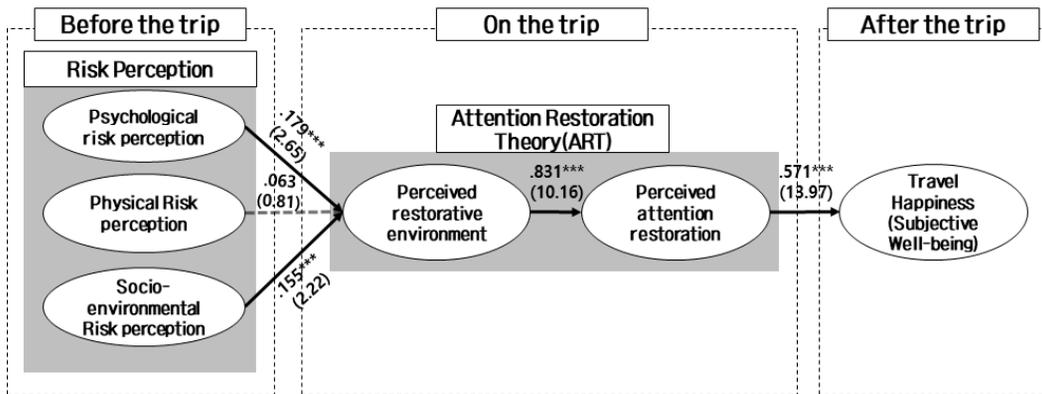
구조모형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을 하였다. CMIN/p값은 0.05보다 낮고, CMIN/DF는 2보다 낮아야 하나 데이터 표본이 많을 시에는 4 이하이면 연구 모형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우종필, 2012). 모델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두 수치 모두가 적합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RMR은 0.05 이하이면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연구결과 0.029로 나타나 적합하였으며, GFI, AGFI, CFI, NFI이 0.8~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수용가능하다(박지현·한성훈·우종필, 2017). 그리고 RMSEA 역시 0.052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심리적 위험과 신체적 위험 요인은 회복환경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 h1-3은 지지되었고, 신체적 위험지각과 회복환경 지각의

〈Table 9〉 Fitnes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Chi-square/p	C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RMSEA
1368.572/0.000	3.041	.029	.884	.864	.913	.877	.914	.052



Note: 1. Numbers are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2. Dotted line indicates nonsignificant path.  
 3. sig.=significant (p < 0.05); not sig.=not significant.  
 4. \*\*\*p<.001

〈Figure 2〉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인과관계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β심리적 위험→회복환경=.179, t=2.647, p<.001; β신체적 위험→회복환경=.063, t=.813, p>.001; β사회·환경적 위험→회복환경=.155, t=2.219, p<.001). 또한, 회복환경 지각이 주의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는 지지되었다(β회복환경 지각→주의회복=.831, t=10.161, p<.001). 마지막으로, 주의회복이 여행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이 지지되었다(β주의회복→여행행복=.571, t=13.970, p<.001).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심리적인 위험과 사회·

환경적 위험을 강하게 느낄수록 자연 관광지 방문 시 회복환경을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지각 심화는 오히려 자연환경을 방문했을 시에 회복환경을 더 확연하게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 여행은 회복환경지각을 했을 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주의회복을 경험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자연 여행의 회복환경에서 회복 경험은 나아가서 전반적 여행에서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 환경 대비 자연 환경에서의 주의회복 경험의 효과와 스트레스 지각 및

〈Table 10〉 Result of path analysis

	Hypothesis	Estimate	S.E.	C.R.	β	P	Decision
RP	PSRP → PRE	.066	.025	2.647	.179	.008	<b>Supported</b>
	PHRP → PRE	.032	.040	.813	.063	.416	Not supported
	SERP → PRE	.071	.032	2.219	.155	.026	<b>Supported</b>
	PRE → PAR	2.358	.232	10.161	.831	.000	<b>Supported</b>
	PAR → SW	.506	.036	13.970	.571	.000	<b>Supported</b>

\* RP: Risk perception, PSRP: Psychological risk perception, PHRP: Physical Risk perception, SERP: socio-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PRE: Perceived restorative, PAR: Perceived attention restoration, SW: Subjective Well-being

주의회복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상황에서 지각한 불안 심리를 위협지각으로 확장하여 회복 공간으로 자연환경의 의의를 학술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자연에서 주의회복 경험이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행복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는데 의의를 갖는다.

## V. 결과 및 시사점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람들은 공포감이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들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전진아·이지혜, 2020). 또한 사람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지만, 기존의 다양한 여행 활동이 제한되어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다(최영준 외, 2016; 전진아·이지혜, 2020). 따라서 부정적 심리 회복을 위해 대인 간 접촉이 적은 국내 자연관광지로 여행 수요가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심리 요소가 자연의 회복환경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여행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연관광지 관광객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령자에 비하여 젊은 층이 국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상태인 심리적 위협지각 및 사회·환경적 위협지각이 높을수록 회복환경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의회복 환경지각은 여행행복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의회복이론을 통해 자연공간의 역할과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서 자연환경을 방문한 여행객의 회복경험을 규명하고, 개인이 인식하는 여행 행복감의 상승 수준을 파악하는 결과로 이론을 확장하였다.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자연환경 공간의 여행경험이 주의회복 및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Bratman *et al.*, 2015),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Bimonte *et al.*, 2014; Windhorst & Williams, 2015) 선행연구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둘째, 일상 속의 부정적 감정은 개인이 여행을 떠나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 거리두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사회·환경적 위협지각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자연 환경에서 회복환경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통하여, 부정적 심리 상태에서 사람들은 회복환경을 보다 극대화하여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이 되었다(Bratman *et al.*, 2015). 반면에 신체적 위협지각은 자연여행을 통한 치유 효과 영향력 밖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회복환경 지각의 인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오경희 외(2015)가 연구한 우울, 심리적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개인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시 회복환경을 보다 크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부정적 감정을 단순히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인지하는 기존의 인식과 반대로, 자연환경여행에서 부정적 심리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여행의 심리적 회복 효과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연구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여행의 심리적 회복과 행복 상승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행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 심리 상승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행을 단순히 쾌락 상승의 기제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여행의 행복 지각 효과에 대한 연구 분야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자연환경 기반으로

안전한 여행 및 맞춤형 자연 환경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역관리 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자연환경은 심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심리적 성숙 및 삶의 활력과 행복감을 주는 장소라는 것이 밝혀졌으나, 다소 신체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Mayer, Frantz, Emma, & Dolliver, 2008; Tsunetsugu, Park, & Miyazaki, 2010).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아 자연대상지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자연 환경 여행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연환경 여행경험을 하고 에너지 충전 및 긍정적 심리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심리적 회복효과를 지니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 관광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 결과 자연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이 회복 및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도심 속의 인위적인 시설을 최소화 하여 자연을 통한 행복감을 상승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인공 시설물 설치 및 경관계획 수립 시 경관 전문가를 통해 주변과의 벗어남, 매혹감, 일치감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안전 관광을 지원하는 힐링 관광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일상의 부정적 감정은 여행을 떠나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 위협에도 부정적 심리 회복을 위하여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힐링 관광 프로그램 상담이 필요하다. 감염 상황에서 증가하는 관광 수요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안전한 여행을 도우며 부정적 감정 해소를 돕기 위한 적합한 여행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에서 국유림 행복 여행 관광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신체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 보다 심리적·사회적 위험 심리가 회복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켰다. 자연여행의 심리적 상승효과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은 국가 보유 자연 관광지를 국민의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 관광을 중심으로 위험지각에 따른 주의회복이론 및 행복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여행공간으로써 국내 자연기반 관광지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자연기반 회복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향후 조성되는 여행 상품 사업이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고 여행지의 자연 환경 본래 모습을 유지시키며 치유회복 환경을 극대화시켜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일반적인 자연 기반 관광지 모두를 포함하여 실증조사 하였기에 자연적 특징(산, 바다 등)이나 조성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연기반 관광지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이를 비교하는 연구, 여행 집단 특성 별로 다르게 도출되는 회복환경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의 개발된 주의회복 이론과 행복 이론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대상지에 사용 측정 척도 활용이 완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연구의 타당화 과정을 위해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어떤 형태의 회복 환경 조성이 인간의 여행행복감을 증진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Jung, San-Seol: Research design,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Qualitative Analysis and Writing. Kim, Kyoung-Bae: Research design and Conceptualization. Lee, Hoon: Supervision and Validation.**

---

**References**

- Assael. (1997). *Consumer Behaviour and Marketing Action*, Sixth Editions.
- Bauer, R. A. (1960).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Chicago, IL*, 384-398.
- Bernstein, H. E. (1975). Boredom and the ready-made life. *Social research*, 512-537.
- Berto, R. (2005). Exposure to restorative environments helps restore attentional capac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3), 249-259. <https://doi.org/10.1016/j.jenvp.2005.07.001>
- Bimonte, S., & Faralla, V. (2012). Tourist types and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in Maremma, Ital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4), 1929-1950. <https://doi.org/10.1016/j.annals.2012.05.026>
- Bimonte, S., & Faralla, V. (2014). Happiness and nature-based vac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46, 176-178. <https://doi.org/10.1016/j.annals.2014.02.002>
- Binstock, J. (1991). Health Objective Series: Stress Management Consulting for Workplace Mental Health and Wellness. *AAOHN Journal*, 39(2), 62-63.
- Bratman, G. N., Daily, G. C., Levy, B. J., & Gross, J. J. (2015). The benefits of nature experience: Improved affect and cogni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38, 41-50. <https://doi.org/10.1016/j.landscapeurbplan.2015.02.005>
- Caldwell, L. L., & Baldwin, C. K.(2004). Preliminary effects of a leisure education program to promote healthy use of free time among middle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310-335. <https://doi.org/10.1080/002222216.2004.11950026>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 Cho, D. (2017). Analytical Concept of Happiness and Its Measurement. the Korean Labour Economic Association, 40(3), 79-104.
- Choi, I. S., & Lee, H. (2016). An Analysis of Leisure Experience Through Active Leisure Participants Playfulness. *Journal of Tourism Studies*, 28(1), 83-104.
- Choi, Y. J., Lee, H. S., & Moon, S. J. (2016). The Effect of Nature Scenery Relations Experience to Viewers on TV Media Scre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4(2), 33-53.
- Chung, Y. L. (1997). The Causal Model Building Study for Interrelationship among the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Leisure Flow Experience, Leisure Boredom and Leisure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Korean Adults.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8, 115-132.
- Daniel, R. M. (2014). The effec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on attention restoration (Doctoral dissertation,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5), 1105. <https://doi.org/10.4135/9781412956253.n278>
- Diener, E., Sandvik, E., Pavot, W., & Gallagher, D. (1991). Response artifacts in the meas-

- 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35-56. <https://doi.org/10.1007/bf00292649>
- Diener, E., Suh, E., & Oishi, S. (1997). Recent findings on subjective well-being. *Indi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5-41.
- Dodge, R., Daly, A. P., Huyton, J., & Sanders, L. D. (2012). The challenge of defining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2(3), 222-235. <https://doi.org/10.5502/ijw.v2i3.4>
- Ehrenreich, B. (2009). Bright-sided: How Positive Thinking is Undermined America. *Metropolitan Books*.
- Fuchs, G., & Reichel, A. (2011). An exploratory inquiry into destination risk perceptions and risk reduction strategies of first time vs. repeat visitors to a highly volatile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32(2), 266-276. <https://doi.org/10.1016/j.tourman.2010.01.012>
- Hartig, T., Kaiser, F. G., & Bowler, P. A. (2001). Psychological restoration in nature as a positive motivation for ecological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33(4), 590-607. <https://doi.org/10.1177/00139160121973142>
- Hartig, T., Mang, M. & Evans, G. (1991). Restorative Effects of Natural Environments Experiences. *Environment and Behavior*, 23, 3-26. <https://doi.org/10.2150/jlve.33.37>
- Hartig, T., & Staats, H. (2006). The need for psychological restoration as a determinant of environmental preferen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6(3), 215-226. <https://doi.org/10.1016/j.jenvp.2006.07.007>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9). Análise multivariada de dados. *Bookman editora*.
- Huta, V., & Ryan, R. M. (2010). Pursuing pleasure or virtue: The differential and overlapping well-being benefits of hedonic and eudaimonic motiv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6), 735-762. <https://doi.org/10.1007/s10902-009-9171-4>
- Jacoby, J., & Kaplan, L. B. (1972). The components of perceived risk. *ACR Special Volumes*.
- Jang, B. K., & Kang, M. H. (2009). The Trends and Its Tasks of Tourism Crisis Management in Korea. *Crisisonomy*, 5(2), 24-39.
- Jeon, J. A., & Lee, J. H. (2020). COVID-19virus Disease-19 Heart Health Care Status and Problem. *Health welfare Issue and Focus*, 375, 1-8.
- Jeong, D. Y., & Lee, S. J. (2020). Changing the future of travel. *Issues and Diagnosis*, 1-2.
- Jiang, B., He, J., Chen, J., Larsen, L., & Wang, H. (2020). Perceived Green at Speed: A Simulated Driving Experiment Raises New Questions for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nd Stress Reduction Theory. *Environment and Behavior*, 1-40. <https://doi.org/10.1177/0013916520947111>
- Joe, S. C. (2011). A Research of a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isk of travel products, destination image and attitude: for Australia visitor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5(6), 99-117.
- Jung, S. S., & Lee, H. (2019).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Authenticity and Tourism Satisfaction according to Day and Night Scenery: Focusing on Royal Palace Tourism.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15(3), 139-168.
- Kaplan, R., & Kaplan, S. (1989). The experience of natur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 CUP Archive. <https://doi.org/10.1037/030621>
- Kim, J. H., & Choi, S. H. (2018).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restorative environment, place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happiness for golf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7(5), 333-342.
- Kim, L. H., Qu, H., & Kim, D. J. (2009). A study of perceived risk and risk reduction of purchasing air-tickets online.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26(3), 203-224.
- Kim, Y. N., & Hong, S. H.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Optimistic Bias in Risk Perception of COVID 19: Perspectives of Jeju Visitor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4(8), 79-101.
- Kim, Y. W.(2005).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ived Risk and Travel Motivation in Travel Typology Choice: A Mutinomial Logit Model Approach.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9(3), 291-313.
- Knight, Frank, H. (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Houghton Mifflin: Boston, MA
- Knobloch, U., Robertson, K., & Aitken, R. (2017). Experience, emotion, and eudaimonia: A consideration of tourist experiences and well-bei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5), 651-662.
- Ko, D. W. (2008). Psychological Effects of Tourism Experiences: The Leisure Therapeutic Perspective.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0(1), 1-20. <https://doi.org/10.1177/0047287516650937>
- \_\_\_\_\_ (2013). Psychological Effects of Nature Tourism.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4(3), 17-40.
- Ko, K. S. (2010). A Strategic Approach to Crisis Management for Virus Infections in the Tourism Industry.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14(1), 1-17.
-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2020). <https://www.khealth.or.kr/kps>
- Kwon, J. W & Lee, H. (2016). A Study on the Travel Experiences to Prolong Happiness. *Journal of Tourism Studies*, 28(4), 171-192. <https://doi.org/10.21581/jts.2016.11.28.4.171>
- Lee, H. (2001). Influence of Five-day Workweek on Leisure Lifestyle and Tourism Industry. *Journal of Tourism Studies*, 13, 31-57.
- Lee, S. B., Ryu, S. Y., & Song, W. K. (2013). A Relation Between Trave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Healing Tourism research. *Tourism research*, 38(1), 77-97.
- Lee, S. H. (2007). The Context Analysis of the Emotion-Improving Effects of the Index of Greenness: Home and Other Plac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2(4), 997-1017.
- Lee, S. H., & Hyun, M. H. (2003).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PRS). *Korean Journal of Heal Psychology*, 8(2), 229-241.
- \_\_\_\_\_ (2004). The comparis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restorative environment in stress-buffering effects. *Korean Journal of Heal Psychology*, 9(3), 609-632.
- Lee, J. S., & Chun, W. B. (2005). The Relationship among Tourism Activities leisur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8(4), 149-172.

- Lee, Y. J. (2015). The Impact of Voluntourism on Voluntourist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Application of In-depth Interview.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9(4), 113-127.
- LePera, N. (2011). Relationships between boredom proneness, mindfulness, anxiety, depression, and substance use. *The New School Psychology Bulletin*, 8(2), 15-25. <https://doi.org/10.1037/e741452011-003>
- Liang, R. D., Chang, C. S., & Wang, T. S. (2011). The effect of service responsiveness and social emotions on service outcom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ervice firms.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5(8), 3155-3167.
- Lin, W. Y., Chang, W. D., Ko, L. W., Tsou, Y. A., & Chen, S. H. (2020). Impact of patient-related factors on successful autologous fat injection laryngoplasty in thyroid surgical treated related unilateral vocal fold paralysis-observational study. *Medicine*, 99(1). <https://doi.org/10.1097/md.00000000000019406>
- Lyubomirsky, S., & Tucker, K. L. (1998). Implicatio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for perceiving, interpreting, and thinking about life events. *Motivation and emotion*, 22(2), 155-186.
- Martin, D. (2002). Pentecostalism: The world their parish.
- MMayer, F. S., Frantz, C. M., Bruehlman-Senecal, E., & Dolliver, K. (2009). Why is nature beneficial? The role of connectedness to nature. *Environment and behavior*, 41(5), 607-643. <https://doi.org/10.1177/0013916508319745>
- Moran, D. (2019). Back to nature?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nd the restorative effects of nature contact in prison. *Health & place*, 57, 35-43.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9.03.005>
- Nam, E. Y., Lee, J. Y., & Kim, M. H. (2012). Do Leisure Activities Make People Happier?: The Role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Leisur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5), 1-33.
- Nawijn, J. (2010). The holiday happiness curv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mood during a holiday abroad.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2(3), 281-290. <https://doi.org/10.1002/jtr.756>
- Nicolao, L., Irwin, J. R., & Goodman, J. K. (2009). Happiness for sale: do experiential purchases make consumers happier than material purcha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2), 188-198. <https://doi.org/10.1086/597049>
- Norem, J. K. (2001). Defensive pessimism, optimism, and pessimism. In E.C. Chang(Ed), *Optimism and pessimism: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77-10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h, K. H., Kim, D. J., & Yeoun, P. S. (2015). A Psychological Phenomena Analysis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d Healing in the Forest.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30(2), 277-286. <https://doi.org/10.13047/kjee.2016.30.2.277>
- Oh, M. Y., & Oh, M. S.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Optimistic Bias in Risk Perception of Tourist Dest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7(4), 101-118.
- Park, E. G., & Kim, J. H. (2002). Effects of Leisure Experience and Identity Salience on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Serious Leisure. *Korean Journal of*

- Psychology*, 21(2), 141-161.
- Park, J., Han, S., & Yu, J. (2017). The Effects of Brand Equity, External Environment, and Internal Environment on Customer Satisfaction, Credibility, and Revisit Intention: Focusing on Optometric Clinics.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19(2), 115-125.
- Park, J. R., & Kim, B. K. (2018). A Study on the Change of Attitude of Residents in PyeongChang Area at an International Event. *Conference of Tourism Science Society of Korea*, 83, 70-75.
- \_\_\_\_\_ (2020). The Effects of Recovery Experiences on Tourists' Satisfaction: Focusing on Mountain and Beach Destination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24(2), 73-82.
- Peter, J. P., & Ryan, M. J. (1976). An investigation of perceived risk at the brand level.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3(2), 184-188. <https://doi.org/10.2307/3150856>
- Reisinger, Y., & Mavondo, F. (2005). Travel anxiety and intentions to travel internationally: Implications of travel risk percep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3), 212-225. <https://doi.org/10.1177/0047287504272017>
- Roehl, W. S., & Fesenmaier, D. R. (1992). Risk perceptions and pleasure travel: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4), 17-26. <https://doi.org/10.1177/004728759203000403>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141>
- Seligman, M. E. (2012).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Simon and Schuster.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Special Issue: Positive Psychology*, 55(1), 1-31. <https://doi.org/10.1037/0003-066x.56.1.89>
- Seligman, M. E., Rashid, T., & Parks,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8), 774.
- Shin, H. R., Yoo, T. Y., Kim, S. K., & Kim, Y. S.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Changes in Daily Life of the Elderly amid COVID-19 : Focusing on Technology Use and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Elderly Welf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5(4), 207-232.
- Smith, M. K., & Diekmann, A. (2017). Tourism and wellbe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66, 1-13.
- Southon, G. E., Jorgensen, A., Dunnett, N., Hoyle, H., & Evans, K. L. (2017). Biodiverse perennial meadows have aesthetic value and increase residents' perceptions of site quality in urban green-spac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58, 105-118. <https://doi.org/10.1016/j.landurbplan.2016.08.003>
- Su, L., Swanson, S. R., & Chen, X. (2016). The impact of perceived service fairness and quality on the behavioral intentions of Chinese hotel guests: the mediating role of consumption emotions.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33(sup1), 88-102. <https://doi.org/10.1080/10548408.2015.1008668>
- Suh, E. K., & Koo, J. S. (2011). A Concise

-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ume*, 25(1), 96-114. <https://doi.org/10.21193/kjspp.2011.25.1.006>
- Stigsdotter, U. A., & Grahn, P. (2004). A garden at your doorstep may reduce stress -Private gardens as restorative environments in the city. *Proceedings Open Space-People Space*, Scotland.
- Tsunetsugu Y, Park BJ., & Miyazaki Y (2010) Trends in research related to "Shinrin-yoku" (taking in the forest atmosphere or forest bathing) in Japan,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 Medicine*, 15(1), 27-37. <https://doi.org/10.1007/s12199-009-0091-z>
- UNWTO. (2021).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March 2021. Retrieved from <https://www.e-unwto.org/doi/book/10.18111/9789284422456>
- Van Boven, L. (2005). Experientialism, materialism,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32-142. <https://doi.org/10.1037/1089-2680.9.2.132>
- Windhorst, E., & Williams, A. (2015). "It's like a different world": Natural places, post-secondary students, and mental health. *Health and Place*, 34, 241-250.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5.06.002>
- Yoon, S. M., Lee, C. K., & Kang, H. (2014).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rowding, Perceived Risk, Satisfaction, Trust, and Support in a Festival Site: The Case of the Seoul Lantern Festival.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6(6), 337-357.
- Yu, J. P. (2012).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국문참고문헌

- 고계성(2010). 전염병 위협에 따른 관광산업 위기 관리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경영 연구』, 14(1), 1-17.
- 고동우(2008). 여가치료의 관점으로 본 관광 체험의 심리적 효과. 『호텔관광연구』, 10(1), 1-20.
- \_\_\_\_\_(2013). 자연관광의 심리적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4(3), 17-40.
- 김영우(2005). Mutinomial Logit Model 을 이용한 해외여행자의 관광동기 및 위험지각이 관광 유형선택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9(3), 291-313.
- 김영남·홍성화(2020). 코로나 19 위험 인식과 낙관적 편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 방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4(8), 79-101. <https://doi.org/10.17086/jts.2020.44.8.79.101>
- 김재형·최석환(2018). 골프장에 대한 회복환경지각과 장소애착감 및 골프의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333-342.
- 권장욱·이훈(2016).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는 여행 체험 분석. 『관광연구논총』, 28(4), 171-192.
- 남은영·이재열·김민혜(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33.
- \_\_\_\_\_(2020). 관광객의 회복경험이 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산악형 및 해안형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4(2), 73-82.
- 서은국·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오경희·김동준·연평식(2015). 숲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396-396.

- 오미영 · 오미숙(2013). 관광지 위험지각에 있어서의 낙관적 편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저널』, 27(4), 101-118.
- 이상봉 · 류시영 · 송운강(2013). 여행경험과 심리치유 간의 관계. 『Tourism research』, 38(1), 77-97.
- 이승훈(2007). 녹시율의 정서증진효과에 대한 맥락 분석: 집과 집 이외의 장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97-1017.
- 이승훈 · 현명호(2003). 한국관광 회복환경지각척도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229-241.
- \_\_\_\_\_ (2004). 자연환경과 회복환경의 스트레스 완화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609-632.
- 이정순 · 전원배(2005). 관광활동, 여가만족, 심리적 웰빙 (well-being), 주관적 웰빙 (well-being)의 관계. 『관광학연구』, 28(4), 149-172.
- 이윤정(2015). 자원봉사여행의 심리적 치유 효과-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관광학연구』, 39(4), 113-127.
- 이훈(2001). 주 5일 근무제가 레저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연구: 레저론적 분석. 『관광연구논총』, 13, 31-57.
- 장병권 · 강문호(2009). 국내 · 외 관광위기관리의 동향과 정책과제. 『Crisisonomy』, 5(2), 24-39.
- 정대영 · 이수진(2020).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이슈and진단』, 1-2.
- 정산설 · 이훈(2019). 주야 경관에 따른 진정성과 관광만족의 차이분석-고궁관광을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15(3), 139-168.
- 조성찬(2011). 여행상품 위험지각과 여행목적지 관광이미지 및 태도와의 관계 연구-호주 방문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5(6), 99-117.
- 최영준 · 이효성 · 문상정(2016). TV 미디어 화면의 구성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자연교류 경험의 효과.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4(2), 33-53.
- 최일선 · 이훈(2016). 활동성 여가행위자의 놀이성을 통한 여가경험 분석. 『관광연구논총』, 28(1), 83-104.